

허석 순천시장 ‘천막 토론’ 적극 소통 눈길

해룡면 상비마을 진출입로 개선 방안 마련 현장 방문
주민들 “대형사고 우려”...관계부서 대책 마련 지시

허석 순천시장이 시민·광장토론에 이어 천막토론까지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18일 “허 시장이 최근 해룡면 상비마을에서 주민 30여명과 함께 마을 진출입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천막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막대화에서 주민들은 서면-해룡산 단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이후 마을 입구에서 발생하는 잦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수차 진출입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유지, 도시계획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다음달부터 추진될 복성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맞물려 향후 발생할 더 큰 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줄 것을 허석 순천시장에게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허 시장은 마을 진입로를 둘러본 후 인근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시 소관부서,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허 시장은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시 차원에서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상비마을 한 주민은 “그동안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었다”며 “허석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과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에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싹 가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의 가려운 곳,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이 천막이 상비마을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고 순천시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과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토론, 광장토론, 정겨운 담소 등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19일 오후 7시 조례동 조은프라자 광장에서 ‘순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광장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순천=남정민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최근 해룡면 상비마을에서 주민 30여명과 함께 마을 진출입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천막대화’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치매안심센터·(사)희망세상
독거 어르신 치매예방 업무협약

순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사)희망세상이 지난 17일 독거 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고위험군 독거 어르신 조기검진·예방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용석 순천시 보건소장과 허병주 (사)희망세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치매 미검진자 발굴과 치매예방 강화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희망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은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미검진 어르신에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조기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에서는 치매에 방제, 워크북을 활용한 활동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서용석 보건소장은 “생활관리사들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돌봄과 치매예방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따뜻한 복지도시’ 순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기자

곡성군,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 귀추 주목

청렴마인드 강화 등 5개 부문 33개 항목 추진

곡성군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도 5개 부문 33개 항목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 범군민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곡성군의 청렴도는 201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도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위기감을 느낀 곡성군은 청렴도를 회복하고 군민들에게 곡성군에 대한 부패인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 종합 3위의 결과를 얻었다. 전남도의 평가는 반부패 노력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곡성군의 노력이 돋보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2017년(4등급)에 비해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3등급의 성적을 받아들이었다.

곡성군은 올해도 5개 부문 33개 항목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권익의 청렴도 평가 1등급 진입을 목표로 먼저 청렴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청렴마인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과 청렴결의대회를 마쳤고 자체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 운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 교육, 매월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청렴-친절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유도해 청렴을 일상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 관련 업무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청렴을 재미있게 내면화할 수 있는 이색 정책도 눈에 띈다. 곡성군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청렴꿀네벨을 개최했다.

딱딱한 청렴교육에서 벗어난 퀴즈형식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곡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렴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다”며 “작은 부패에 둔감해지다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며 청렴을 지키는 일에는 TPO(시간, 장소, 상황)나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곡성=안용식기자

정겨운 시골집 ‘곡성스테이 1·2호점’ 탄생

맞춤형 숙박 ‘로컬문화’ 만끽

곡성 시골여행의 백미를 더해줄 곡성스테이 1호점과 2호점이 탄생했다.

최근 여행의 추세가 관광지 중심에서 로컬문화(지역문화)를 느끼는 여행으로 변모하고 있다. 여행에서 마저 관광지의 혼잡함에 치여 이리저리 떠밀리기 보다는 여유를 느끼며 삶의 휴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스테이는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 정겨운 시골집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며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자는 체류형 힐링 관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곡성스테이는 곡성읍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곡성군 주요 관광지 한복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

현재 1·2호점은 기차마을과 뚝방마켓 등에서 도보로 20~25분 정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걸어서 10분 내외가 소요

된다.

곡성스테이에서는 시골 민박에서 자주 느끼게 되는 시설의 불편함은 찾을 수 없다. 프로젝트를 통해 시골의 정취를 느끼면서 숙박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내·외부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곡성스테이 1호점은 에메랄드색 대문 이 인상적이다. 인심 좋은 큰형님댁 같은 부부 내외가 운영하고 있으며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가 느껴진다.

2호점은 아담하고 전통적인 매력에 돋보이는 가족 황토방이다. 두 집 모두 주인이 거주하는 본채와 독립된 별채로 이뤄져 있어 휴식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장미축제 개막 시즌에 맞춰 손님맞을 준비를 마친 곡성스테이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 전문 숙박중개시스템 등재를 준비 중이다.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곡성군 농촌지원과로 문의(061-360-7286)하면 된다. /곡성=안용식기자

‘순천시 열린정원 여행’ 21일부터 운영

내달 5일까지 매주 주말

순천시는 18일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순천시에 소재한 아름다운 개인정원을 감상하며 봄을 만끽하는 ‘2019 순천시 열린정원 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린정원 여행’이란 개인의 공간인 정원을 개방해 참가자에게 정원주의 삶이 담겨 있는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원을 매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원 관광 콘텐츠’다.

이번 ‘열린정원 여행’은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주차장을 출발해 원도심권의 개인정원을 탐방하는 오전 코스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마을의 개인정원을 탐

방하는 오후 코스로 운영되며 도착은 국가정원 서문주차장으로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열린정원 여행이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개인정원 탐방 등 정원문화를 느껴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으로 회차별 18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날짜와 탐방 경로를 선택해 남도정원연구소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정원산업과(061-749-2752) 또는 남도정원연구소(061-751-553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남정민기자

지역화폐 ‘심청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

곡성군, 소상공인 대상 캠페인

곡성군이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곡성군은 18일 “심청상품권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심청상품권 가맹점 미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곡성을 상징가 밀집 지역인 중앙로 일대(군민회관-낙동원 회전 교차로 구간)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캠페인에 나선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을 비롯한 주무부서 직원 10여명은 심청상품권 미등록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홍보용 물티슈,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심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배부하며 현장등록을 추진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가맹점 확대로 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돼 자금 유출을 막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3종(2천원권, 5천원권, 만원권)의 종이 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 5천원 중 2천원을 심청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면서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곡성=안용식기자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달팽이 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급 월 270만원 예상
(+1층 농장 임대비)

땅 + 건물 + 태양광
(선로 걱정 없는 한국형)

2년 6개월이면
현금 투자 회수 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복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 2019년 10월 준공 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 담 전국대표 1588-1543
이 길 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센스톡 통역기

해외여행, 출장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수 있는
다국어 통역 **센스톡 (16개 국어 양방향 통역(번역))**
"인터넷,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없이 양방향 동시통역!"
외국어 전혀 몰라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술술~
세계인과 통역하자(내손안의 통역비서)

SENSEtalk
내 스마트폰에
통역칩을 쏘~옥!

최신 신제품 32GB
최신 신제품 16GB

특별행사
센스톡 구매시
히든케어
허리보호벨트
(특허 제10-1392404호)
45,000원상당 증정

본점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임동오거리
Tel. 062-522-2000

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54 금호월드1층139호(정문입구)
Tel. 062-350-8397